



“깨끗한 무주 부자된 군민 실현 주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존을 위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번뇌를 반복해야했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순탄치 않은 여정을 시작하며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600년, 무궁무진 무주를 향해 가겠노라” 당찬 포부를 밝혔던 무주군.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들은 현실 극복의 키를 '경쟁력'에서 찾으며 분투하고 있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를 기반으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주력하며 무주만의 강점을 찾아 다지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 2016년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썼던 황정수 군수를 만났다.

▲ 2016년은 민선 6기 반환점이 되는 해였지요. 6차 산업화 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만큼 각오나 계획도 남다른 것인데요. 올해 어떠셨나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조금 더 분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선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과 반딧불축제에 대한 발표, 차별화, 세계화, 그리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요. 현실화를 위해서는 반딧불 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전통시장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마을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또 민선 6기 반환점을 돌며 “6차 산업화로 하나된 무주”를 만들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만큼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신축 추진을 비롯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과 융·복합화 추진, △농 식품 가공창업 교육과 △국가직업훈련 인증추진,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결성, △체형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등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6차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을 결성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마을로 가는 축제’가 본격화되면서 무주군의 마을 만들기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중간조직의 역할은 뭐고 또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무주군의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이 12월 8일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사)마을을 잇는 사람들은 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며 ‘마을로 가는 축제’를 정착시켰던 무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협의회(2016년 2월)가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한 건데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평가, 그리고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을과 행정을 연결해 마을발전과 공동소득 향상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 무주 농·특산물은 반딧불 브랜드로 이미 특화가 됐는데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소비자층도 두터울 겁니다. 올해도 2백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배가 증가했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1,332농가가 직접 참여해 관내·외, 온·오프라인을 통해 얻은 수익 2백억 1천 9십여만 원은 지난해 매출 대비 1백억, 올해 목표 대비 5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수치네요. 친환경농업실천을 기반으로 농업소득 분야의 마케팅을 강화시켜 얻은 성과입니다.

맛, 품질, 가격을 무기로 한 판로 확보는 물론, 신규 농가들의 참여를 늘려 거래 품목과 수량을 다양화하고 농가에는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온 것도 주요요인이라고 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의 주요 판매처는 농·특산물대축제와 주말날장 등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 1백여 개소에서 펼친 직거래장터와 롯데백화점, 서울·부산지역의 코엑스, 서울 지역 이마트 등지에서의 상설판매, 반딧불사이버장터 등 온라인 쇼룸이었는데요. 사과와 배추가 흥풍과 대만, 베트남 지역의 수출 길을 열면서 세계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가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로 어느 해보다 분주하셨을 텐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나요?

대회 준비를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뛰고 있는데요. 태권도원 진입도로 인도 설치 공사를 완료(태권도원~원평마을 250m)한 것을 비롯해 일반음식점 개선사업(임식,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보수 등) 추진과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군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주 I에서 실천면 태권도원 구간까지의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대회 홍보와 더불어 대회 기간 중에 운영할 공연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발굴(무주전

통놀이, 전통 공예품 전시 등)하는 것과 무주투어 연계 상품 홍보하는 것, 꽃길조성과 먹거리 운영시설, 의료지원, 먹거리 부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17 무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태권도원 활성화된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제대로 된 손님맞이를 하고 태권도 성지로서도 손색이 없으려면 사실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특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뛰었는데. 그 결과 태권도상징거리 조성을 비롯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단과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여억 원을 확보했고요.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비 36억,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35.2억 원 등도 확보를 했습니다.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실천 간 10.9km) 4차로 확장사업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도 올렸고요. 가장 큰 경사는 태권도원 상징지구(태권전, 명인전) 조성사업비 70억을 확보한 것이 될 텐데요. 무주군과 도, 태권도계가 같이 뛰고 정부, 국회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추진 가족실습농장 조성 등 6차 산업 정착

내년 세계태권도 대회 성공적 개최 위해 환경정비·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 무주하면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으로 그 명성이 더 견고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지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11월 현재 426만여 명이 다녀간 것 같은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13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들이 확충되고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됐던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세계질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레저 스포츠 관광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무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주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주부자군민학교를 운영해 군민역량을, 중화권시장을 공략해 가능성을 키웠고 무주군 대표 메뉴 브랜드 ‘반디한첩’도 탄생시켰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무주를 대표하는 전통놀이이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손짓하는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각오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는 6차 산업화를 통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네요. 다양한 지역지원을 발굴해 농업과 관광, 산업, 복지에 접목시키고 이것이 소득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 2백여 개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텐데요. 날마다 변화하는 무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무주의 2017년을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주=전문선 기자

